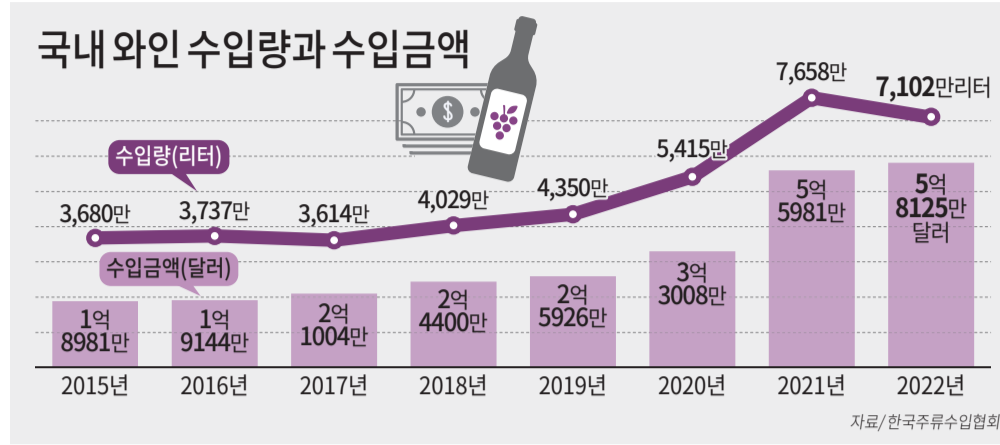


# 성숙기인가, 정체기인가... 작년 와인 수입량 줄어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성숙기인가, 정체기인가. 우리나라 와인시장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해 와인 수입 규모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마냥 좋아하기엔 뭔가 짝 짝하다. 일단 자체로도 증가폭이 미미한데다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와인 수입 규모는 5억8125만 달러로 집계됐다. 2억 달러 안팎에 머물렀던 국내 와인 수입 규모는 팬데믹 1년차인 2020년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서더니 올해는 6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원화로 환산한 수입규모 약 7700억원에 각종 세금과 마진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와인 시장의 규모는 이미 2조원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로 보면 기세는 크게 꺾였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각 27%, 69.6%로 급증했지만 2022년은 3.8%에 그쳤다.

전체 수입 주류 시장을 놓고 보면 와인과 맥주 같은 비교적 '순한' 술이 주축했고, 위스키와 꼬냑, 고량주 같은 '독한' 술이 다시 살아났다. 위드 코로나로 외부활동을 시작하면서 소위 '집술'보다 '업소술'을 찾는 이가 많아진 탓이다.

계다가 물량 기준으로 보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수입된 와인은 7102만 리터로 전년 대비 7.3% 줄었다. 와인에 돈을 쓰긴 했지만 확실히 덜 마셨단 얘기다.

와인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의견은 엇갈

린다.

사실 코로나19라는 특수 요인이 사라진 이후로도 와인 시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또 절대적인 물량 소비는 줄었지만 금액은 유지됐으니 질적 성장의 신호라는 분석이다.

실제 저가 와인의 대표 주자들인 칠레와 스페인 와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칠레 와인은 수입 규모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로는 10.8%, 스페인 와인도 12.4% 줄었다.

반면 와인 중주국인 프랑스와 미국 와인은 올해 들어서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다.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은 금액 기준으

로 각각 12.3%, 13.2% 늘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 소비가 많이 늘었다. 스파클링 와인의 수입액은 26.5%, 수입량도 21.4% 늘었다.

반면 이제 와인 시장은 포화 상태라는 이들도 많다. 금액 부분의 경우 소비자들이 좋은 와인을 찾아 나섰다기 보단 와인 가격 자체가 오른 결과로 보는 것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와인 업계에도 불어닥쳤고, 거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널뛰기를 하는 환율도 악재 요인이긴 하다.

내부 해석은 뜻이 모아지지 않고 있지만 외부 시선은 긍정적이다.

프로바인이 전 세계 와인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주목하는 유망시장이다. 미국 와인업계는 2023년 가장 매력적일 와인시장으로 한국을 꼽았고, 와인중주국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한국을 상위권에 올려놨다.

오는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3대 와인박람회 가운데 하나인 비넥스포(Vinexpo)가 한국에서 열린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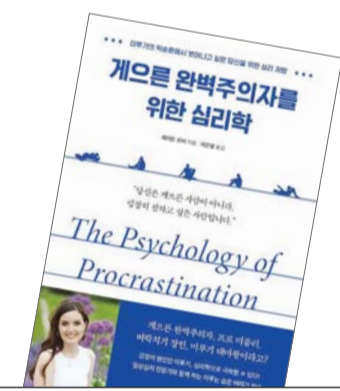
###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 배가 아프다. 못된 심보를 벌 주려는 건지 정수리에 새치가 한 가득 생겼다. 스트레스 때문이란단.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 데 난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반성해봤다. 딱 한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행동력. 성공한 자들은 엉덩이가 가벼워 빨리빨리 일을 시작했고, 필자는 머릿속으로 할 일을 계획만 하다가 지쳐 아무것도 안 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은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라는 책 표지의 문구가 눈에 띄어 구매해 읽게 됐다. 할 일을 안하고 미적대는 사람들은 "오늘은 창조적인 활동을 할 기분이 아니야", "편지가 눈에 띄니 집 청소를 먼저 해야 겠어", "에너지가 바다나 움직일 수 없어"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저자는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과도하게 편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만족감을 나중으로 미루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 탓에 즉각적인 보상과 즐거움을 주는 더 흥미로운 과업으로 일과를 시작한다고.

책은 "미루는 사람은 실패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문제에 봉착하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대상에 저항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으며 목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면 자제력과



####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헤이든 핀처 지음/이은정 옮김/시크릿하우스

동기 부여에 타격을 입어 결국 미루기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불안감부터 느끼며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데 그런 순간은 없다고 책은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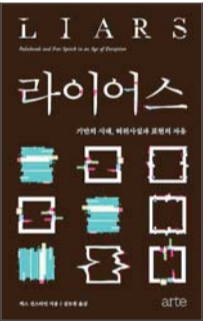
저자는 뒤든 잘해내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여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측정 및 달성 가능하며 관련성이 있고 기한이 정해진 목표 설정 ▲과업을 시작하며 드는 불쾌감보다 끝마쳤을 때 느낄 보람에 집중 ▲과업을 수행하면 얻을 이점을 목록으로 정리 ▲미루기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것을 조언한다.

252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라이어스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이 판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걸까. '라이어스'는 법철학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보장할 것인가', '왜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섬세한 논의를 펼친다. 책은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

케스 스타인 지음/김도원 옮김/arte(아르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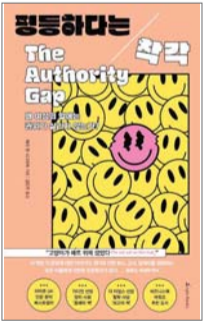


272쪽. 2만4000원.

### 평등하다는 착각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매컬리스를 만난 자리에서 그녀를 희 지나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대통령의 남편이 되니 차라리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매컬리스는 허공에서 머뭇대던 교황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일랜드 국민이 뽑은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매컬리스입니다. 님이 보기에 좋든 싫든 말이죠" 일을 잘해도 승진에서 경쟁자에게 밀리고, 통찰력 있

메리 앤 시그하트 지음/김진주 옮김/앵글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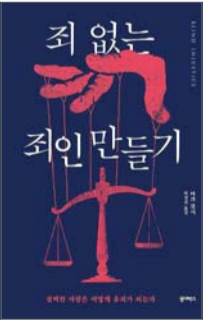


488쪽. 2만2000원.

### 죄 없는 죄인 만들기

사법제도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요체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례 나래수피 강도치사 사건, 수원역 노숙자 살인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죄 없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감옥에 갇힌 이들이 존재한다. 책은 죄 없는 죄인을 만들어내는 검경 및 사법 시스템의 잘못된 관행과

마크 갓시 지음/박정선 옮김/원대북스



420쪽. 2만5000원. /김현정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검토할 것" /사진 뉴시스  
▲시민단체들,尹 당선 1년에 "민생 파탄에 전쟁 위기 고조"

▲MZ노조, '주 69시간 가능' 근로시간제 개편안 반대  
▲서울대 "정순신 아들에 할 수 있는 한 최대 감점했다"



▲강남 산후조리원서 RSV 집단감염... 복지부 "이달 중 실태조사"  
▲권기섭 고용차관 "근로시간 개편안, 실근로시간 단축에 유리" /사진 뉴시스